

<한국근대미술-전통과 문명의 갈림길에서>

박영택(경기대 교수, 미술평론가)

1. 근대라는 개념, 근대라는 시기

조선 사회까지 유지되었던 전통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지금과 같은 일상생활과 문화가 생겨나 자리 잡게 된 시기는 언제일까?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시기, 이른바 '근대'에 우리의 삶/문화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였고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 시절을 살아간 사람들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자기화 했을까? 조선은 미처 준비 없이 변화를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전통문화는 큰 위협을 받았다. 전통문화가 변화하여 새로운 조선의 문화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자.

모던 / 근대의 개념

모던(현대성, 근대성)은 서양 근·현대사를 특징짓는 근본정신, 시대정신을 일컫는다. 모더니티는 하나의 총체적인 시대정신, 모더니즘은 그러한 시대정신이 예술로 발현된 것, 특징적인 표현 형태를 지칭한다.

서구의 모던

중세의 봉건주의적 가치관에 반항, 과학적이며 합리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의식. 고대와 중세 즉 지나간 시대와 질적으로 다른 시대, 문화적인 사건들로는 문예부흥, 종교개혁, 활자의 발명 그리고 프랑스혁명, 산업혁명, 과학의 진보 등

1. 모더니티의 시대정신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18 세기 **계몽주의**사조. 중세는 신이 중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우주에서 신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기에 주체적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피동적으로 신의 계시를 수용하는 자세인 반면 데카르트는 이성 중심의 주체개념, 인간은 모두 가장 중요한 이성적 능력을 평등하게 지녔으며 그런 이성적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2. 자연관의 변화-코페르니쿠스가 태양계에 대한 논문(**지동설**) 발표 1543 년. 기독교 지배 하에서는 천동설(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창조,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선언)
3. 진보에의 믿음,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계속 작동되기 위해서는 계속 인위적인 욕망을 우리들이 갖게끔 부추겨야 함. 자본주의의 목표란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잘 만족시켜주면 줄수록 행복해준리라는 가정에 기반. 다윈의 진화론과 동일.
4. 합리성-삶이 모던하다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말, 합리적이란 나의 삶을 조율하고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 이외에 신이라는 것이 개입하거나 초자연적인 미신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모더니티의 핵심적인 명제-인간의 이성적 능력, 그리고 이성적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합리화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 이성적 주체, 독립적 주체 강조.

일본의 모던

1549년 예수회 사비에르가 가고시마에 도착(근대유럽과 동아시아가 마주친 최초의 기록), 1579년 예수회 총감독 발리나노가 규슈 지방4곳에 서양미술교육과정이 포함된 신학교를 세움, 서양미술을 전하는데 적극적. 1639년 천주교 전파에 대해 쇠국령을 내렸지만 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는 예외. (적극적으로 蘭學수용)

메이지(명치, 1868-1912) 정부의 '문명개화'의 구호는 脱亞入歐, '서양문명을 목표로 삼자' 는 사회이상. 적극적으로 서구문명, 시스템, 미술을 수용. 서양의 근대문화는 자본주의의 산물, 일본은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려고 함, 이미 만들어진 문화재를 수입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정치, 경제, 의식주 같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화의 이식을 추구하여 일본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 아울러 한국과 중국이 모두 서구화를 외면, 1869 년 '해외유학규칙'을 제정, 유럽 각국에 유학생파견.(1990 년대 초기에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구로다 세이끼의 회화관은 "개개인의 天真을 중요시"한 것. 그러한 발상은 동경미술학교를 통해 보급, 표현으로서의 회화를 전개시킬 준 무대) 1876 년 일본 최초의 미술학교(工部미술학교, 실은 기술학교), 1878 년 동경미술대학 미술학부의 전신인 동경미술학교 (페놀로사, 오카쿠라 덴신), 1907 년 문부성 미술 전람회설치.

독자적인 국민문화의 존립은 국민경제의 수립, 폭력장치의 장악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국가의 요건, 일본화를 주축으로 한 일본미술은 다른아닌 근대일본국가의 대표적 국민문화로서 형성. 원래 일본화란 서양화법을 근간으로 하여 전통회화를 개조시키는 과정에서 창출된 것.

중국의 모던

중국은 1582 년 이탈리아의 예수회 사제인 마테오 리치가 중국 마카오로 파견. 선교사에 의해 성상화가 전해짐. 郎世寧(castiglione1688-1766, 유명한 선교사 화가) 이후 중국에서 예수회의 포교활동이 금지되었을 때 선교사를 따라 전해진 서양미술도 잠잠. 중국의 경우 실제 근대미술로의 전향은 중일전쟁 이후 (1894) 일어남. 갑오전쟁 이후 중국 미술은 청정부가 과거제도를 폐지한 후 새로 세운 사법교육중도화수공과(1906)를 설치. 중국 최초의 근대미술교육실시, 해외유학생 파견운동, 리수통(李淑同,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 구로다에게 배움, 대부분이 유화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감)

강 유웨이(康有爲 1858-1927/변법자강 1898 '외국의 유익한 문물을 배우자') "우리그림은 거칠고 미숙..마땅히 변법의 대상, 문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상공업과 아울러 그림에 관련된 것도 매우 중요, 기베르티와 라파엘로는 명의 문징명, 동기창과 같은 시기의 화가..그들은 사실을 추구하고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추구하니 이러한 상반됨은 우리로 하여금 쇠퇴에 이르게 한 것..."

한국근대미술기점논의

근대미술이 지닌 양의성(서양화가 동양화를 근대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근대미술을 곧 서구미술의 유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으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근대미술을 서구의 근대미술의 개념으로 설명해내지 않으면 안되게 했다. 이때 근대적 미술은 근대적 '주체'가 아닌 '타자'의 문화로 읽혀진다. 그것은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보하기 위한 모든 근대적 움직임에 준하는 행위가 오히려 타자의 문화로 대체되는 즉 '주체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 그러니까 서구에서 모더니즘 미술이 주체적 자각과 자아의 발견이라는 근대적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이른바 자율적 예술로 자리 잡은 데 비해 우리의 근대미술은 주체가 상정되지 않은 자율적 미술로 도입된 셈. 사실 우리의 근대미술은 '근대적' 징후들마저 미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작가들에게 근대적인 인식의 주체로서 예술가의 자아를 발견한 흔적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간 작가중심의 혹은 작품 중심의 접근에서 '근대성'의 징후들은 서구적인 잣대로 찾아낼

수밖에 없게 되며 따라서 근대미술의 진정한 근대성은 발견되기 어려웠다. 우리의 근대미술 작품에서 매개된 '시각적 현상'들이 근대 전체와 어떤 유기적인 관련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한 다른 하나의 지향점이 '시각적인 문화현상'속에서 근대적 개념을 추출하는 작업이다. 근대의 미술작품만이 근대미술의 텍스트일 수 있는가를 회의하는 입장에 따라 당시의 다양한 시각물, 시각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입장들이 대두, 시각문화 속의 근대적 상황이란 '작품 내적인 양식의 변화'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이미지의 대량 복제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이미지의 소통을 가능케 한 신문, 시각적 체험을 보다 확산시킨 신식 건축, 이미지의 생산과 소통에 새로운 충격을 준 사진의 등장과 활발한 유통, 기타 복제되거나 대량생산된 이미지들의 확산 현상 등에서 발견된다. 여기에 미술내적인 작품에 등장하는 시각이나 형식적인 변화들은 이러한 시각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바뀌게 되는 세계관 혹은 인식의 틀을 반영하는 현상일 것이다.

한국 근대미술기점론

근대란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로 옮겨가는 사회구성체의 성격변화

그간 거론된 근대미술의 기점은 대체로 1)조선후기설 2)개화기설 3)1910 년설 4)1911 년설 5)근대부재설 및 기타 등이 있다.

최열은 사회구성체의 변화와 미술 담당층 및 종류체계의 변모를 근거로 하는 19 세기 중엽설을 제시하였다. 18-19 세기 계급구조가 크게 동요, 지주자본가계급으로서의 성장, 상공업이 발달. 이에 따라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 등장(화원들이 사사장인이라는 직업적 예술가의 모습으로 이동, 18 세기에 유랑화공(사사장인), 이들은 시정취미에 부합) 민화(고급문화의 어떤 화법에도 구속을 받지 않고 오로지 민중 감각에 맞게 자유롭게 그리고 민중기호에 따른 소재를 민중이 원하는 다채로운 색채표현으로 발전), 속화(서민들이 모여 사는 시장지대, 부유한 시정배들의 수용 조응), 불화(조선후기에 불교가 강력하게 대두, 민간사회의 신앙을 습합시켜 나갔다. 승려화가(화승), 무속화주문에 응함), 문인화(19 세기에 이르러 추사의 복고주의와 모화사상은 발전에 역류, 반면 몰락의 위기에 왕공사대부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완당바람이 일어남, 이념적 형식인 문인화를 강력지지)

홍선표는 '근대적 표상시스템이 탄생한 시기는 1890 년대'라고 규정, 그는 이 시기를 '중화주의와 천하적 세계관, 봉건적 신분체제와 농업 중심의 중세적 체제에서 국민국가와 산업자본주의 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 시대이며 그 사례로 1895 년 소학교령에 따른 초등교육의 실시와 그 교과과정, <독립신문>과 같은 대중매체 출현, 내한한 서양인 화가들에 의한 서양화의 파급을 들었다.

개화기설을 들 수 있다. 강압적이고 타율적인 개항(1876)과 개혁(1894)이기는 하였으나 서구문물의 공식적인 유입과 그 파급에 의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과 근대화가 전개되었으므로 근대의 기점을 19 세기 후반경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개항설 역시 주체적인 발전사의 입장이 아니라 서구 문물의 유입이라는 외형적 점에서 타율적 근대화론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 보편사적 시각에서 볼 때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근대화라는 역사적·물리적 현상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측면에서 개항과 갑오경장을 전후한 개화기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1920 년대설 근대적 미술제도로써 1921 년 서화미술협회전, 1922 년 조선미술전람회 출현, 둘째, 감상형태의 변모와 미술 대중화로써 서화협회전, 조선미술전 그리고 개인전 출현 및 언론에서의 미술 비평의 등장, 근대적 미술교육으로서 서화학원, 고려미술원을 비롯한 여러 공사립 미술교육 시행, 근대적 화풍으로서 동연사 이후 전통회화 부문의 획기적 변화와 실험의지의 발현 및 리얼리즘미술론과 서화협회, 프롤레타리아 미술론과 카프미술운동을 아우르는 민족미술론의 전개를 근거로 삼았다.